



루터의 도시를 가다

8

비텐베르크



내년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십 년 전부터 기념 행사들을 시행해 왔고,

세계 여러 나라들도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세속화가 거센 오늘날, 종교개혁의 슬로건처럼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루터가 걸어간 개혁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기독교, 교회,

신앙인이 먼저 믿음과 생활의 개혁으로 그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1517년 10월 31일, 95개조 반박문을 공포한 이후 루터는 독일 여러 도시를 다니며 개혁사상을 전파하였다. 그런데 반대파들과 벌인 설전은 오히려 자신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수많은 참여자들을 통해 개혁 사상은 전 유럽으로 퍼져 나갔다. 루터는 라이프치히 논쟁을 마치고 다시 비텐베르크로 돌아왔다. 그리고 채 식지않은 열정과 복음에 대한 순종으로 집필 작업에 몰두하였다. 이때 완성된 글 중에서 <독일 귀족에게 고함>, <교회의 바벨론 포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루터의 종교개혁 3대 저술로 알려져 있는 귀중한 보배이다.

<독일 귀족에게 고함>에서 루터는 독일의 모든 사

람, 귀족이나 평민이 모두 고통과 환란 속에 있다고 호소하였다. 그동안 개혁의지가 있어 왔지만 권세자들에 의해 방해받았고, 그리하여 루터는 하나님의 인도로 그들의 사악한 계계를 폭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글에서 기독교 세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27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교회의 바벨론 포로>는 가톨릭의 온갖 비신앙적 교리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었던 형국과 유사하다. 루터는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었듯 교회도 잘못된 교리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루터는 교황과 화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의 <교황 레오 10세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은 그런 상황을 보여 준다. 루터가 공격한 것은 교황 자체보다 그를 중심으로한 권력과 신앙의 부패였다. 그의 의도는 다르게 해석되었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통해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설파하였다. 그가 내세운 두 가지 명제는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으로 아무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충실한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다.” 신앙인의 진정한 자유는 외식과 잘못된 교리로 억압할 수 없다. 성직자의 가르침이 성경을 따르지 않으면 신앙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없다. 루터는 진정한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의(義)로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주장한다.

글 | 추태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로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기독교문화운동가이다.

이 글은 <연합기독뉴스>에 실렸던 글임을 밝힙니다.